

경찰 신뢰의 변화에 대한 국가간 비교연구*

**

차 례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베이지언 잠재변인 모형
- IV. 경찰신뢰에 대한 국가간 비교 분석 결과
- V. 결론 및 시사점

〈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경찰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세계 각국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수십년 동안 동일한 설문문항을 활용하여 대규모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경찰신뢰에 대한 국제 설문조사 프로젝트는 연도별·국가별·프로젝트별로 파편화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Claassen(2019)의 베이지언 잠재변인 모형(Bayesian latent variable model)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등을 포함한 전 세계 129개 국가를 대상으로 1990년부터 2024년까지 35개년 동안의 경찰 신뢰 수준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찰에 대한 신뢰는 1990년 이후 큰 변화없이 전세계 국가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아시안·오세아니아 국가 또는 유럽 국가들의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미대륙 국가들의 평균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다. 이 연구가 두세계 국가에 대한 단일 연도 비교분석을 뛰어넘어 한국의 경찰신뢰 변화를 국가간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주제어: 경찰 신뢰, 베이지언 분석, 잠재변인 모형, 국가간 비교, 경찰 신뢰 변화

*

**

I. 서론

토마스 홉스에 따르면, 인간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과 같은 자연상태의 혼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리바이어던이라 불리는 국가에 해결할 힘을 부여함으로써 질서유지와 사회안전을 확보하게 된다. 국가에 부여된 힘을 공권력(公權力)이라고 일컫는데, 국가의 권위와 공권력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국가기관 중의 하나가 경찰(警察)이다. 따라서 국가라고 한다면 경찰기관은 반드시 존재하고, 국가는 경찰기관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경찰이 신뢰를 얻으면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경찰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Hamm et al., 2017; Jackson & Bradford, 2010; Sunshine & Tyler, 2003), 시민들은 더욱 안전하다고 느끼게 되며(Skogan, 2009), 나아가 국가 권위와 국가 전체의 정당성을 보장받게 된다(Bittner, 1970). 하지만, 경찰이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공권력을 무리하게 사용하여 시민을 억압하거나, 부패와 부조리에 휩싸여 뇌물을 받는 등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게 된다면, 국가 존재의 정당성은 약화될 것이고 나아가 경찰에 주어진 공권력 사용의 수용성은 훼손될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 존재의 정당성과 공권력 사용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국가의 모든 권력 기반은 정당성(legitimacy)을 추구하는데 국가기관의 권위는 신뢰 없이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Tyler, 2004; Bittner, 1970). 따라서, 경찰기관이 권위와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도 정당한 것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경찰 활동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시민들은 112신고 전화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경찰공무원이 즉시 도착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은 '경찰'을 통해 가장 최근접에서 국가의 힘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반면, 경찰은 '어항 속의 물고기'처럼 투명하게 관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민과 경찰간의 상호관계는 '경찰신뢰'라는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지난 30년 동안 세계 각 국가의 형사정책학자, 범죄학자, 경찰 기관은 시민과 경찰간의 관계를 측정하고자 노력하였고, 특히 경찰신뢰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기울여 왔다(Alda et al., 2017; Macchia & Plagnol, 2019; Cao, Lai, & Zhao, 2012; Jang et al., 2010; Cao & Zhao, 2005). 국제간 설문조사 프로젝트(Global Barometer, Pew Research Center, World Value Survey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찰신뢰는 국

가마다 상이하고 역동적으로 변화한다(Schaap & Scheepers, 2014). 하지만, 한국경찰을 중심으로 전세계 다양한 국가들과 비교하여 경찰신뢰의 수준이 어떤지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제시한 연구는 발견하기 어렵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한국의 경찰신뢰의 수준이 전세계 국가와 횡단면적으로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울러 시계열적으로 1990년부터 2024년까지 35년간 한국 경찰신뢰의 변화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 기술적으로 추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경찰신뢰의 의미

경찰신뢰란 경찰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의미한다. 여기서 신뢰(信賴)라는 개념은 복잡하지만, 대부분의 정의는 대상의 행동 방식에 대한 암묵적 또는 명시적 기대를 의미한다(Giddens, 2023). 신뢰는 효능감과 의도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에 기반한다(Hardin, 2006). 첫째, 효능감은 신뢰의 대상이 자신의 주장이나 약속, 또는 행동이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이행할 수 있다고 믿을 때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의도는 개인이나 기관, 조직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들이 시민에게 올바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할 때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뢰는 신뢰의 대상이 신뢰하는 사람의 이익을 파악하고 그것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하는 사회적 관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Bradford et al., 2016).

이러한 차원에서 경찰에 대한 신뢰는 경찰기관의 활동이 경찰기관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에 부합하고, 경찰기관이 효과적이고 선의를 가진 것처럼 보일수록 신뢰를 받게 된다. 그러나 단순히 대면 상호작용에만 의존하는 신뢰 생성 과정을 바탕으로 한 경찰신뢰 개념은 사람들과 경찰 간의 복잡한 관계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Bradford et al., 2016). 시민들 중에서 매우 소수만이 개별 경찰관이나 경찰기관의 행동방식에 대해 경험으로 바탕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직접적인 접촉 경험없이 경찰을 신뢰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경찰관 또는 경찰기관과의 개인적인 접촉 외에도 범죄에 대한 인식, 지역치안의 질적 수준, 언론 등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에 대해 신뢰하는지를 평가하게 된다(Jackson & Bradford, 2010).

시민들이 경찰을 정당하고 합법적인 존재로 인식할 때, 그들은 경찰과 협력할 가능성이 더 높고(De Cremer & Tyler, 2007), 경찰이 물리적으로 현장에 없더라도 법을 준수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Jackson et al., 2012; Sunshine & Tyler, 2003). 이러한 시민과 경찰간

의 협력적 관계는 경찰이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Hamm et al., 2017; Jackson & Bradford, 2010; Sunshine & Tyler, 2003).

2. 경찰신뢰에 대한 국가간 비교 연구

2000년대 들어 많은 학자들이 2-3개 국가를 대상으로 경찰신뢰 관련 국가간 비교 연구(Alda et al., 2017; Macchia & Plagnol, 2019; 노연상·임창호, 2017; 장현석, 2014; 황의갑·한성일, 2016)를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세계 경찰 인식 조사(WVS)와 유럽 경찰 인식 조사(ESS)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다수 국가들을 비교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Cao, Lai, & Zhao, 2012; Jang et al., 2010; Cao & Zhao, 2005). 이러한 연구 중에서 다수는 국가 수준의 분석에서 구조적 요인이 대중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Ruddell & Trott, 2023; Kääriäinen, 2007).

대규모 국가 표본을 대상으로 한 경찰신뢰도 조사 중에서 대표적인 국제 설문 프로젝트인 미시간 대학교의 세계가치조사(WVS)의 경우, “몇몇 조직의 이름을 제시하겠습니다. 각 조직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매우 신뢰합니다, 상당히 신뢰합니다,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라는 질문을 통해 각 국가들의 경찰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WVS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찰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는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평균적인 주민이 경찰을 신뢰하지 않는 국가도 상당수 존재한다.

Kääriäinen(2007)은 ESS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질서 및 안전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유럽 국가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이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더 낮다고 보고한다. 또한, 26개 유럽 국가의 국민 인식을 조사한 Schaap와 Scheepers(2014)는 구소련 블록 국가 출신 응답자들이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더 낮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별로 비교적 일관적이며, 개인의 경찰 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특이하게도, Ruddell & Trott(2023)은 로이드 레지스터 재단에서 발표한 세계 위험도 조사(2020)를 바탕으로 105개국을 대상으로 경찰신뢰를 조사한 결과, 법치주의 준수도가 높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높은 국가에서 시민들이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세계 위험도 조사에서는 경찰신뢰를 “지역 경찰이 고가의 분실물을 돌려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응답한 비율로 측정하였는데, 105개국의 경찰신뢰의 평균은 46.6점이고, 표준편차는 21.7점으로 나타났다.

Solakoglu(2016)은 2010년에 실시된 유럽 사회 조사(ESS)의 국가별 자료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투명성 수준이 거의 동일하지만 법 집행 구조가 다른 벨기에와 네덜란드에 대해 경찰신뢰에 대해 분석한 결과, 경찰의 효율성과 대중의 경찰 신뢰 간의 연관성은 두 국가 모두에서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한편, 벨기에 시민들은 1부터 10까지의 척도에서 경찰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 평균 6.01점이고, 네덜란드 시민들은 같은 척도에서 평균 6.42점을 기록하여 네덜란드의 경찰신뢰가 다소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한국과 다른 2~3개를 비교하는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으며, WVS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국가간 경찰신뢰를 비교분석한 연구는 소수에 그친다. 대표적으로 노연상·임창호(2017)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전대학교, 공주대학교, 신성대학교에서 재학중인 대학생 300명과 중국의 경우 베이징리공대학교, 베이징린예대학교, 지닝스판대학교, 흐타오대학교에서 재학중인 대학생 300명 등의 총 600명을 대상으로 경찰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한국 대학생들의 경찰신뢰도는 3.35인데 비해 중국대학생들의 경찰신뢰도는 3.89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장현석(2014)은 Global Barometer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과 일본 국민들의 자국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0.44를 보일 때 일본이 0.51를 보여서 -0.07의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이다. 황의갑·한성일(2016)은 2014년에 한국에서 시행된 전국범죄피해 조사 설문자료와 이를 번역하여 몽골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의 경찰신뢰도는 9.56점으로 몽골의 8.88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를 나타낸다.

국제설문프로젝트를 활용하여 다수 국가를 비교한 연구로는 정보성·이창배(2018)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정보성·이창배(2018)은 미국 미시간 대학의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의 제6회차(2010-2014년) 57개국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전 세계 국가의 경찰신뢰의 평균은 2.61으로 한국인의 경찰신뢰 수준과 비슷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장현석·김소희(2012)은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 연구의 1982년, 1990년, 1996년, 2001년, 2005년, 그리고 2010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경찰신뢰도의 시계열적 변화를 연구하였다.

종합하면, 외국의 선행연구들은 다수 국가들의 경찰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이론적인 발전을 이루어왔다. 하지만, 한국을 중심에 두고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연구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의 선행 연구들은, 한국경찰을 중심에 두고 2~3개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기술적 통계와 인과적 추론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아직도 전 세계 경찰과의 비교 속

에서 한국의 경찰신뢰의 위치와 그 동태를 밝힌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빈자리를 채운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Ⅲ. 베이지언 잠재변인 모형

1. 분석단위 및 자료수집

이 연구는 세계 각 국가 단위에서 시민이 갖는 경찰에 대한 신뢰의 변화를 기술적으로 추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변수는 시민들이 자국의 경찰기관에 대해 갖고 있는 신뢰를 나타내는 국가 단위로 집계된 측정 지표이다. 이 연구는 경찰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 설문조사 문항을 갖는 국가간 또는 국가별 설문조사 데이터 중에서 국가단위의 확률적 표본추출과정을 거치 설문조사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 대상기간은 1990년부터 2024년까지 35개년도이다. 국가간 설문조사 프로젝트의 일부는 1981년부터 조사가 시작되기는 하였지만 1981년 이후 1989년까지 국가단위 설문조사는 매우 드문 상황이었고, 199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아울러 분석대상 기간인 35개 년도 중에서 적어도 5번 이상 국가간 또는 국가별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129개 국가만을 분석대상 국가로 선정하였다. 129개 국가의 인구를 모두 합치면 전 세계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데이터 수집 대상 국제 설문조사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1) 아프로바로미터 (Afrobarometer)는 1999년 12개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제1차 조사를 실시한 이후 2023년 33개 국가를 대상으로 제9차 조사가 진행되었다. (2) 아랍 바로미터 (Arab Barometer)는 2006년 7개 아랍 국가를 대상으로 제1차 조사를 실시한 이후 2023년 8개 국가를 대상으로 제8차 조사가 진행되었다. (3) 아시아 바로미터 (Asia Barometer)는 2003년 아시아 10개 국가를 대상으로 제1차 조사를 시작한 이후 2008년 까지 매년 조사가 진행되었다. (4) 아시안 바로미터 (Asian Barometer)는 2001년~2003년 동아시아국가 7개국에 참가하여 제1차 조사를 시작한 이후 2018년~2020년 15개국을 대상으로 제5차 조사가 진행되었다. (5) 미주 대륙 여론조사 (Americas Barometer)는 라틴아메리카 여론조사 프로젝트 (LAPOP)의 일환으로 2004년 아메리카대륙 11개 국가를 대상으로 제1차 조사를 시작한 이후 2023년 19개 국가를 대상으로 제14차 조사가 진행되었다. (6) 코카서스 여론조사 (Caucasus Barometer)는 2009년 코카서스 3개국을 대상으로 제1차 조사를 시작한 이후 2024년 제10차 조사를 진행하였다. (7) 표준 유로바로미터

(Eurobarometer)는 1974년부터 유럽 위원회가 실시한 정기적인 여론 조사로 2024년 현재까지 진행되었다. (8) 라티노바로미터(Latinobarómetro)는 1995년 라틴아메리카 8개 국가를 대상으로 제1차 설문조사를 시작한 이후 2024년까지 제24차에 이른다. (9) 유럽 사회 조사(European Social Survey)는 2002년 유럽 22개 국가를 대상으로 제1차 조사를 시작한 이후 2023년 31개 유럽국가를 대상으로 제11차 조사가 진행되었다. (10) 유라시아 바로미터(Eurasia Barometer)는 탈공산주의 유럽 국가와 탈소련 유라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1994년 제1차 조사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조사가 진행되었다. (11) 유럽 가치 연구(European Values Study)는 1981년부터 2017년까지 9년주기로 주로 유럽 37개 국가들을 중심으로 5차례에 걸쳐서 조사가 진행되었다. (12) Pew 연구센터(Pew Research Center)의 글로벌태도조사(Global Attitudes Survey)는 전 세계적인 여론 조사로 매년 약 36개국을 대상으로 사람들의 삶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13) 남아시아바로미터(South Asia Barometer)는 인도, 네팔 등 5개 남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2005년, 2013년 두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14)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는 1981년부터 전세계 약10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사람들의 가치관에 대해 조사하였다. (15) 생활 전환 조사(Life in Transition Surveys)는 2006년에 EBRD(The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29개 국가를 대상으로 제1차 조사를 시작한 이후 2023년 EBRD 33개국을 대상으로 제5차 조사가 진행되었다. (16) 중부 및 동유럽 민주주의 조사(Consolidation of Democracy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는 1990년부터 1992년까지 10개 중부 및 동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제1차 조사를 시작하여, 1997년부터 2001년까지 15개 국가를 대상으로 제2차 조사가 진행되었다. (17) 신 유럽 바로미터(New Europe Barometer)는 EU의 신규회원국 등을 대상으로 1991년부터 1998년까지 다섯 차례 조사가 실시되었다. (18) 탈공산주의 유럽의 가치관과 정치적 변화(Values and Political Change in Post-Communist Europe)는 1993년부터 1994년까지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제 설문조사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각 국가의 언론사나 연구기관 등에서 전국적 표본추출을 통해 경찰신뢰에 대해 동일 문항으로 10년 이상 조사한 설문자료(예컨대,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실태조사, 일본 중앙조사사의 여론조사, 영국의 경찰 및 형사 사법 제도에 대한 인식과 경험 조사, 미국 갤럽조사, 캐나다 통계청의 일반사회조사, 호주 통계청의 일반사회조사 등)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그림 1> 국가별·연도별 경찰신뢰 관련 국제 프로젝트 설문조사 현황(1990-2024)



이러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확보된 설문조사 자료는 18개 국제 설문조사 프로젝트와 6개의 국가의 개별 설문조사를 포함하여 1990년부터 2024년까지 35개년 동안 129개국에 걸쳐서 2,631개 설문자료가 수집되었다. 이 시계열 횡단면 데이터(time series cross-sectional data)는 연도와 국가라는 셀에 설문조사가 모두 완벽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스위스 치즈 처럼 구멍이 뚫려있는 조각난 데이터이다(<그림 1> 참조).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2개의 국제 설문조사 프로젝트에 국가단위 설문조사가 이

루어졌다. 세계 가치관 조사(World Values Survey)는 1990년, 1996년, 2001년, 2006년, 2013년 등 5번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아프로바로미터 프로젝트(Afrobarometer)는 2000년, 2003년, 2006년, 2008년, 2011년, 2015년, 2018년, 2021년, 2022년 등 9번에 걸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처럼 비교적 정기적인 설문조사에도 불구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1990년부터 2024년까지 35개년 중 13년 동안(2006년 2회 포함)만 측정되었으며, 이마저도 다른 국가에 비하면 평균 이상의 데이터 확보율을 보인 경우이다. 국가별 평균 설문 조사 횟수는 약 19.4회이다.

2. 경찰신뢰 설문문항

경찰에 대한 신뢰는 시민이 해당 국가의 경찰에 대한 전반적인 믿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찰신뢰 관련 질문은 응답자에게 해당 국가의 경찰에 대한 신뢰(trust) 또는 확신(confidence)을 평가하도록 요청하는 질문이나, 해당 국가의 경찰이 그 국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평가하도록 요청하는 질문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경찰에 대한 신뢰와 개념적으로 구별되는 다음과 같은 설문문항은 제외하였다. (1) 경찰운영의 성과나 경찰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문항, (2) 경찰의 부패나 뇌물 수수에 대한 평가를 묻는 문항, (3) 필요할 때 경찰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 (4) 경찰의 권한 남용이나 과도한 물리력 사용 여부를 묻는 문항, (5) 경찰이 얼마나 전문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지 묻는 문항, (6) 경찰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는지와 같은 접근성을 묻는 문항, (7) 경찰이 얼마나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묻는 문항, (8) 경찰이 얼마나 업무수행을 잘하는지를 평가하는 문항, (9) 경찰공무원을 신뢰하는지를 평가하는 항목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먼저 경찰서비스 만족도, 경찰의 부패정도, 경찰서비스의 친절성, 경찰서비스의 전문성, 경찰서비스의 대응성, 경찰의 업무수행 정도, 경찰공무원에 대한 평가 등은 모두 경찰신뢰에 대한 구체적인 만족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볼 수 있으나, 전반적인 경찰기관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을 측정하는 지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조사 프로젝트별 구체적인 경찰신뢰의 설문문항은 <표 1>과 같다. 결국, 18개 국가간 설문조사 프로젝트와 4개의 국가별 설문조사에서 조사한 경찰신뢰에 대한 설문문항은 큰 틀에서는 유사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실제로, 문항의 구분을 얼마나 엄격하게 하느냐에 따라 데이터 세트에는 최대 25개의 서로 다른 문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설문문항에 대한 측정척도도 다양하다. 대부분

의 설문조사의 경우, 응답자들은 ‘매우 불신’에서 ‘매우 신뢰’까지 4점 척도 중에서 선택한다. 하지만, ‘신뢰’와 ‘불신’의 2점 척도의 선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것도 아님’이라는 중립적 선택을 추가하여 3점 척도와 5점 척도의 선택이 주어지기도 한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7점, 10점 또는 11점 척도를 사용한 질문도 있다.

<표 1> 설문조사별 경찰신뢰 설문문항

프로젝트	설문문항
아프로바로미터	How much do you trust each of the following, or haven't you heard enough about them to say: the Police?
아랍 바로미터	I will name a number of institutions, and I would like you to tell me to what extent you trust each of them: the Police.
아시아 바로미터	Please indicate to what extent you trust the following institutions to operate in the best interests of society. the Police.
아시아 바로미터	How much do you trust each of the following, the police?
미주 대륙 여론조사	To what extent do you trust the Police?
코카서스 여론조사	Please assess your level of trust toward each of social institutions and political unions: the Police
표준 유로바로미터	I would like to ask you a question about how much trust you have in certain institutions. the Police
라티노바로미터	Please tell me how much confidence you have in each of the following groups, institutions or persons. the Police.
유럽 사회 조사	Using this card, please tell me on a score of 0-10 how much you personally trust each of the institutions. the Police.
유라시아바로미터	What extent do you trust the following institutions? the Police
유럽 가치 연구	How much confidence you have in the Police?
Pew 연구센터	What kind of influence do each of the following groups or organizations have on the way things are going in (survey country). the Police
남아시아바로미터	Could you tell me how much trust you have in them. the Police
세계가치조사	Could you tell me how much confidence you have in them: the Police
Life in Transition Survey	To what extent do you trust the following institutions? the Police
Consolidation of Democracy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To what degree do you think that you trust the following totally, to a certain point, little, or not at all. the Police
New Europe Barometer	To what extent do you trust each of these political institutions to look after your interests? the police.
Values and Political Change in Postcommunist Europe	I'd like to ask how much you feel you can trust some people and other things. the Police
개별 국가 설문조사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실태조사: 귀하는 다음 기관들이 맡은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습니까? 경찰 일본 中央調査社 : ここにあげた日本の機関や団体などについて、あなたほどの程度信頼できると感じますか。警察 영국의 경찰 및 형사 사법 제도에 대한 인식과 경험 조사: Taking everything into account, how good a job do you think the police in this area are doing. 미국의 갤럽조사: Please tell me how much confidence you, yourself, have in each one. the Police. 독일 German General Social Survey: Please tell me for each institution or organisation how much trust you place in it. the Police. Canada General Social Survey: For each type of institution I name, could you tell me whether you have a great deal of confidence, quite a lot of confidence, not very much confidence, or no confidence at all in it. the Police Australia General Social Survey: How strongly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s? Police can be trusted?

이처럼 파편화되고 정리되지 않은 데이터에서 단일의 개념인 '경찰신뢰'를 통합하는 값을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이렇게 파편화된 데이터를 균형잡힌 데이터로 만들기 위해 대부분의 데이터를 버리고 특정 시점에 하나의 설문 조사 프로젝트에서 수집된 특정 항목에만 집중하게 되면 2개 내지 3개의 소규모 국가 간 데이터 세트만 활용할 수 있게 된다(예: 장현석, 2014; 정보성·이창배, 2018). 이렇게 접근할 경우, 다양한 국가들의 경찰신뢰에 대한 시간적 변화를 파악할 수 없게 되고,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스스로 없애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Claassen(2019)이 개발한 동적 베이지안 잠재 특성 모델 측정 모델을 사용하고자 한다.

잠재 변인 측정 모델은 이항 반응을 가정하며,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정보, 즉 시도 횟수와 성공 횟수가 필요하다. 따라서 각 설문 문항에 대해 두 가지 변수를 수집해야 한다. 첫째, 관련 설문 문항에 응답한 응답자 수이다. 응답자는 일반적으로 각 설문의 전체 표본일 수 있지만, 응답을 거부한 결측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항상 전체 표본은 아닐 수 있다. 둘째, 경찰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을 선택한 응답자의 수이다. 이를 위해 코딩과정에서 모든 응답은 이진 형식(긍정 또는 부정)으로 신뢰에 긍정적이면 '1', 부정적이면 '0'으로 변환하였다. 즉 경찰에 대한 신뢰에 긍정 선택도 부정 선택도 아닌 중립적인 선택하였거나 '모르겠다'고 답하였거나, 아예 답변을 거부한 경우는 모두 결측치로 처리하였다. 예컨대, 경찰에 대해 신뢰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0-10 척도의 경우 중앙값인 5점 보다 높은 점수를 선택하는 경우는 긍정의 답으로 보고 '1'로 코딩하고, 5보다 낮은 점수를 선택하는 경우는 '0'으로 코딩하였다.

결국, 시도횟수는 경찰신뢰 문항 설문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선택한 응답자 수와 부정적인 답변을 선택한 응답자 수의 합이다. 성공횟수는 경찰신뢰 문항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선택한 응답자의 수이다.

3. 경찰신뢰 추정 방법

경찰 신뢰의 잠재적 변인을 추정하기 위해 Claassen(2019)이 제안한 방법을 따라 베이지안 잠재 특성 모델을 가정한다. 경찰 신뢰를 신뢰와 불신의 이진 결과변수로 처리하면, 국가(i), 연도(t), 설문 조사 항목(k)의 경찰신뢰에 대한 긍정 응답자 수(y_{ikt})를 이항 분포를 따르는 성공횟수로 모델링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 세계 129개 국가

(i), 1990년부터 2024년까지 35개 연도(t), 19개 경찰신뢰 설문조사 항목(k)으로 구성된 총 2,631개의 응답자 수(y_{ikt})를 분석하는 것이다.

$$y_{ikt} \sim \text{Binomial}(s_{ikt}, \pi_{ikt})$$

여기서 매개변수 π_{ikt} 는 경찰신뢰에 긍정적인 응답을 선택할 확률이다. 이 연구는 매개변수 π_{ikt} 의 사전확률분포로 베타(Beta) 분포를 적용함으로써 표본 추출만으로 발생하는 표본오차(sampling error) 외에 관찰된 설문 응답에서 나타나는 추가적인 분산을 반영할 수 있다(McGann, 2014).

$$\pi_{ikt} \sim \text{Beta}(\alpha_{ikt}, \beta_{ikt})$$

베타 분포의 두 가지 형상 매개변수($\alpha_{ikt}, \beta_{ikt}$)는 기대값 매개변수(η_{ikt})와 분산 매개변수(ϕ_{ikt})로 표현할 수 있다.

$$\begin{aligned}\alpha_{ikt} &= \phi_{ikt} \eta_{ikt} \\ \beta_{ikt} &= \phi_{ikt} (1 - \eta_{ikt})\end{aligned}$$

기대값 매개변수(η_{ikt})는 잠재적 국가-연도 추정치(θ_{it}), 항목 매개변수(λ_k), 그리고 항목-국가 매개변수(δ_{ik})의 함수로 모델링한다. 여기서 국가-연도 추정치(θ_{it})는 이 연구의 핵심변수로서 국가별 연도별 경찰 신뢰 추정치이다. 항목 매개변수(λ_k)는 항목별 편향의 영향을 통제하고, 항목-국가 매개변수(δ_{ik})는 국가 간 항목 편향의 이질성을 통제한다. 또한 항목별 기울기(γ_k)를 포함하여 잠재적 특성(θ_{it})와 관찰된 응답 간의 연관성이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도록 한다. 즉, 항목 매개변수(λ_k)는 “How much do you trust each of the following?”의 문항과 “Could you tell me how much confidence you have in them: the Police?”라는 설문 항목 표현의 차이의 영향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항목-국가 매개변수(δ_{ik})를 포함한 것은 ‘신뢰’라는 단어가 국가마다 약간씩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신뢰 문항들은 국가 간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begin{aligned}\eta_{ikt} &= \text{logit}^{-1}(\lambda_k + \delta_{ik} + \theta_{it}) \\ \lambda_k &\sim N(\mu_\lambda, \sigma_\lambda^2) \\ \delta_{ik} &\sim N(0, \sigma_\delta^2)\end{aligned}$$

마지막으로, 잠재적 경찰신뢰 추정치(θ_{it})는 동적 선형 모델을 추가하여 시간에 따라 부드럽게 변화할 수 있도록, 현재 잠재적 경찰신뢰 수준은 전년도 수준에 약간의 무작위 잡음을 더하는 함수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국가라는 공간과 연도라는 시간, 그리고 프로젝트별 설문 문항에 따라 이가 빠진듯이 연속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 가능한 모든 설문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매끄러운 국가-연도별 경찰신뢰(θ_{it})를 추정할 수 있다. 나아가 설문 조사 데이터가 없는 연도에도 해당 국가의 경찰신뢰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한다.

$$\theta_{it} \sim N(\theta_{i,t-1}, \sigma_\theta^2)$$

베이저언 추정을 위한 사전확률분포(prior)의 적용은 Claassen(2019)의 방식을 따른다. 특히, 추정 분산에 대해서는 약정보성 반코시 사전분포(weakly-informative half-Cauchy priors)를 적용하였다. 즉, 추정하고자 하는 매개변수에 대한 사전확률분포는 $\sigma_\lambda \sim C^+(0, 2)$, $\sigma_\delta \sim C^+(0, 2)$, $\sigma_\theta \sim C^+(0, 2)$ 이다. 항목 절편의 기댓값(μ_λ)은 $N(1, 2)$ 의 정규 사전분포를 따르고, 분산 모수(ϕ)는 감마 사전분포($\alpha = 4, \beta = 0.1$)를 따른다. 각 국가에 대한 잠재 경찰신뢰의 초기값(θ_{i1})은 $N(0, 1)$ 의 정규 사전분포를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식별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첫 번째 항목 절편(λ_1)은 '1'로 고정한다.

결국 잠재변인모형은 각 설문 항목에 대한 경찰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에 대한 관측치(y_{ikt})를 국가·연도에 가변적인 경찰신뢰라는 잠재변인(θ_{it})의 이항분포 실현값으로 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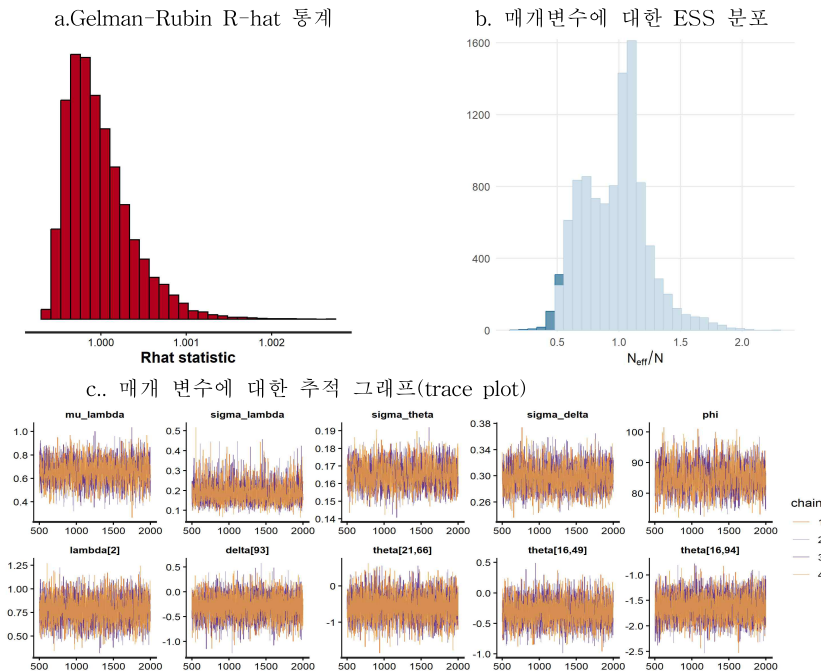
IV. 경찰신뢰에 대한 국가간 비교 분석 결과

1. 수렴진단 및 추정치 산출

이 연구는 해밀턴 몬테카를로 샘플링을 구현하는 Stan 소프트웨어(Carpenter et al., 2017; Stan Development Team, 2023)를 통해 베이저언 마르코프 체인 몬테카를로

(MCMC)방법을 사용하여 잠재변인 모형을 적합시켰다. 4개의 병렬 체인을 각각 500개의 샘플에 대해 실행하였으며, 각 체인의 처음 500개 샘플은 워업(warm-up)에 사용하고 버렸다. 나머지 1500개의 사후 확률밀도 샘플을 저장하고 추가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반복횟수는 수렴에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Gelman-Rubin R-hat 진단값은 모든 매개변수에 대해 1에 가까운 값을 나타낸다(〈그림 2〉 패널 a 참조). 여기서 R-hat 진단값이 1에 가깝다는 것은 서로 다른 체인 또는 초기값이 다른 체인이 동일한 분포로 수렴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모든 R-hat 값이 Vehtari et al.(2021)에서 권장하는 1.01보다 작다.

〈그림 2〉 모형 수렴 진단



체인 내 자기상관은 유효 표본 크기(ESS)로 측정할 수 있다. ESS가 작을수록 추정된 매개변수의 불확실성이 커진다. 다행히 모든 매개변수의 ESS/표본 크기는 0.001보다 크고, 대부분은 0.1 이상으로 가장 엄격한 기준(예: Betancourt, 2017)을 충족한다(〈그림 2〉 패널b 참조). ESS/표본 크기가 0.5보다 작은 경우는 전체에서 일부분에 불과하다. 또한, 몇 가지 선택된 주요 매개변수에 대한 추적 플롯(〈그림 2〉 패널 c)을 통해 4개 체인

의 수렴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주요 매개변수에 대해 추정값이 워밍업 반복 후 빠르게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네 개의 체인이 전반적으로 잘 혼합되고, 어떤 체인도 다른 체인보다 지속적으로 높거나 낮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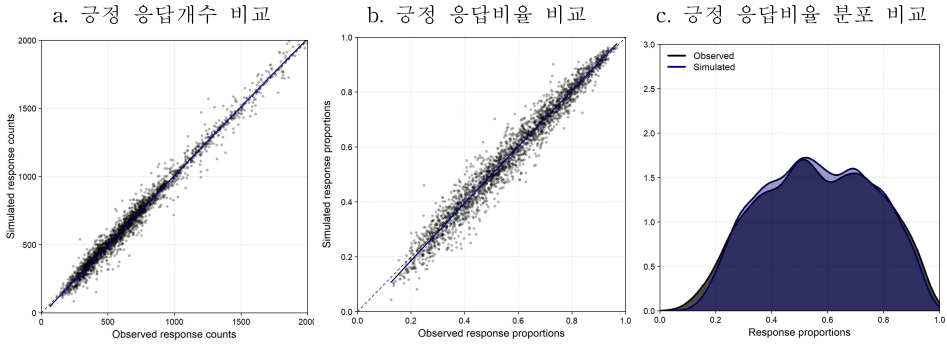
이 연구는 베이지안 마르코프 체인 몬테카를로(MCMC)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모델을 적합시켰다. 그 결과, 국가별 연도별 경찰신뢰 추정치의 평활화된 패널 데이터를 확보하였고, 129개국, 35년치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패널 데이터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제한을 통해 신뢰도를 높였다. 첫째, 최소 5개 이상의 설문조사 데이터가 있는 129개국에 대해서만 경찰신뢰도를 추정하였다. 둘째, 관측값이 없는 연도에 대한 외삽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국가에서 경찰신뢰도를 측정하는 첫 번째 여론조사가 실시된 해 이전 연도의 추정치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국가별 시계열 데이터는 국제 설문 조사를 통해 경찰신뢰가 처음 측정된 해부터 시작된다. 결과적으로 129개국에서 추출한 2,631개의 경찰신뢰도 추정치로 구성된 패널 데이터 세트가 만들어졌으며, 각 국가별 시계열 데이터는 4년에서 35년까지 다양하다. 이 데이터 세트는 본 연구의 나머지 부분에서 국가간 비교를 분석하는데 활용하였다.

2. 모형 검증

잠재변인모형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경찰신뢰 긍정 응답 개수와 긍정 응답 비율 모두에 대한 시뮬레이션 데이터셋을 생성하고 이를 실제 설문조사 응답과 비교하여 그래프로 나타냈다. <그림 3>의 패널 a, 패널 b에서 볼 수 있듯이, 시뮬레이션 데이터(\tilde{y}_{ikt})와 실제 응답(y_{ikt})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패널 c는 시뮬레이션 긍정 응답 비율의 분포가 실제 응답 비율의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사후 예측 검증은 모델이 관찰된 설문조사 응답에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앞서 설정한 사전 확률분포의 선택이 매개변수 추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약정보성 사전 확률분포 보다 분산된 사전 확률분포를 사용하여 모델을 다시 추정하였다. 분산의 경우 역감마(1, 1) 사전 확률분포를 사용하였다. 즉, $\sigma_\lambda \sim \text{Inv-Gamma}(1, 1)$, $\sigma_\delta \sim \text{Inv-Gamma}(1, 1)$, $\sigma_\theta \sim \text{Inv-Gamma}(1, 1)$, $\sigma_\gamma \sim \text{Inv-Gamma}(1, 1)$ 로 설정하였다. 항목 절편의 기대값(μ_λ)에는 보다 분산된 $N(1, 5)$ 사전 확률분포를, 베타-이항 분산 매개변수(ϕ)에는 보다 분산된 감마(2, 0.04)의 사전 확률분포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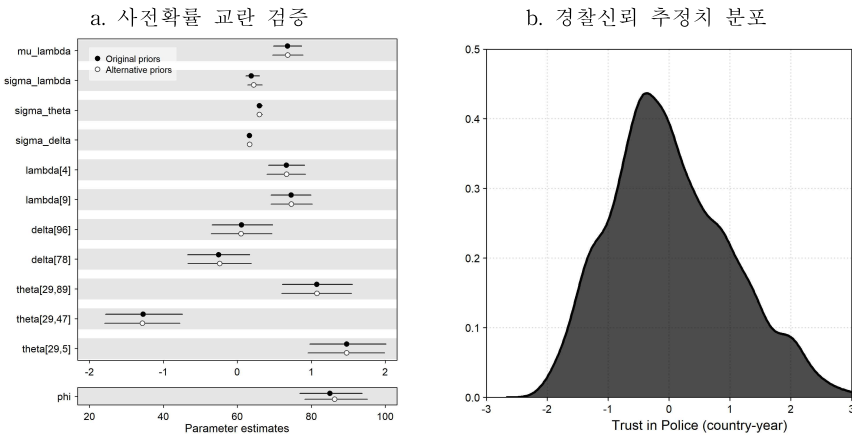
〈그림 3〉 사후예측 검증



주 1: 패널 a, b에서 x 축은 실제 관측치(y_{ikt})이고, y 축은 시뮬레이션 추정치(\tilde{y}_{ikt})이므로, 대각선에 적합할수록 실제값과 추정값이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함.
 주 2: 패널 c는 짙은 색은 긍정응답 비율에 대한 실제 관측치의 분포이고, 옅은 색은 시뮬레이션 추정치의 분포이므로, 양자가 정확히 겹칠수록 분포가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함

〈그림 4〉 패널 a에서 여러 매개변수에 대한 평균과 사후 확률 밀도의 95% 구간을 나타낸다. 이러한 추정치는 사전 확률분포에 좀더 분산된 다른 값으로 설정하더라도 실질적인 매개변수 추정치는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 패널 b는 129개국에 대한 1990년부터 2024년까지 경찰신뢰 시뮬레이션 추정치(θ_{it})에 대한 분포를 나타낸다. 분포는 대체로 대칭적이고 정규분포를 띄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오른쪽으로 긴 꼬리가 약간 늘어진 형태를 보이고 있다. 평균은 0.03이고 표준편차는 0.98이다. 국가별 연도별 경찰신뢰에 대한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추정치를 표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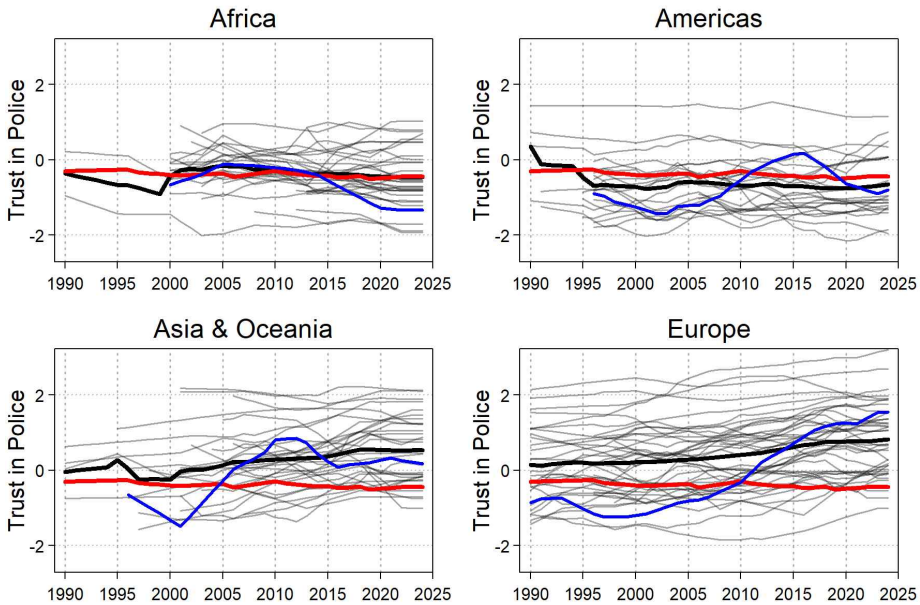
〈그림 4〉 사전확률 교란 검증 및 경찰신뢰(θ_{it}) 추정치 분포



3. 경찰신뢰 변화에 대한 국가간 비교

마지막으로 1990년부터 2024년까지 경찰신뢰 변화를 국가별로 비교하기 위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국가별 경찰신뢰 추정치를 그래프로 나타냈다(〈그림 5〉 참조). 옅은 회색 선은 각 국가별 경찰신뢰도의 시계열 변화를 나타내고, 굵은 진한 검은색 선은 대륙 평균 시계열 변화를 나타내며, 굵은 진한 붉은 색 선은 한국의 경찰신뢰도의 시계열 변화를 나타내며, 파란색 짙은 선은 각 대륙에서 경찰신뢰의 변동성이 가장 큰 국가의 시계열 변화를 나타낸다. 여기서 대륙은 아프리카 지역(Africa), 서반구 지역(Americas),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Asia & Oceania), 유럽 지역(Europe)으로 구분하였다. 지역별 국가의 경찰신뢰도 시계열 변화 그래프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림 5〉 대륙별 국가간 경찰신뢰 변화(1990~2024)



주 1: — 한국의 경찰신뢰 추이, — 굵은 검은색 선: 해당 대륙 국가의 경찰신뢰 평균 추이, — 은 각 국가의 경찰신뢰 추이, — 굵은 파란색 선: 대륙별 변동성이 가장 큰 국가의 경찰신뢰 추이(아프리카 Lesotho, 아메리카 Ecuador, 아시아 Georgia, 유럽 Lithuania)

주 2: 아프리카 대륙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등 32개 국가,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 멕시코 등 24개 국가,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대륙은 일본, 중국, 호주 등 32개 국가, 유럽 대륙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41개 국가임

첫째, 한국의 경찰에 대한 신뢰는 1990년 이후 큰 변화없이 전세계 국가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다른 지역 국가와 비교하면,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 또는 유럽 국가들의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미대륙 국가들의 평균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경찰신뢰 표준화 추정치에 대한 지난 35년간 평균은 -0.385인데, 이를 긍정비율 추정치는 변환할 경우 47.8%이다. 이에 비해, 아시아·오세아니아 32개 국가의 경찰신뢰 표준화 추정치의 평균은 0.293인데, 이는 긍정비율 추정치로 변환할 경우 64.6%에 이르는 수준이다. 유럽 41개 국가에 대한 경찰신뢰 표준화 추정치의 평균은 0.426인데, 이를 긍정비율 추정치로 변환할 경우 67.7%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에 반해 아프리카 32개 국가에 대한 경찰신뢰 표준화 추정치의 평균은 -0.363인데, 이를 긍정비율 추정치로 변환할 경우 48.2% 수준이다. 아메리카 대륙 24개 국가에 대한 경찰신뢰 표준화 추정치는 -0.663인데, 이를 긍정비율 추정치로 변환할 경우 40.9% 수준이다.

둘째, 경찰신뢰의 평균 수준은 국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찰신뢰에 대한 긍정응답 비율 범위는 최고 96%(덴마크 2024년 추정치)에서 최저 20%(볼리비아 2024년 추정치)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다. 예컨대, 덴마크는 경찰신뢰 측정 항목에 긍정과 부정을 응답한 사람 중에서 긍정응답의 비율은 1990년부터 2024년까지 35년 동안 관측치 32건을 분석한 평균적인 긍정비율은 92%에 이르는데, 볼리비아는 같은 기간 동안 관측치 27건을 분석한 평균적인 긍정비율은 2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찰신뢰는 1990년부터 2024년까지 35년 동안 관측치 22건을 분석할 수 있었는데, 평균적인 경찰신뢰 긍정응답 비율은 약 47%를 보이고 있어서 비교대상 129개 중에서 약 84위에 그친다. 한편, 베이지언 잠재변인모형을 통한 국가별 경찰신뢰 추정치에서도 매우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 한국의 경찰신뢰에 대한 추정치를 긍정응답비율로 변환한 결과, 추정된 경찰신뢰 긍정응답비율은 약 48%를 차지하는데 이는 비교대상 129개국 중에서 약 78위에 해당한다. 국가별 연도별 경찰신뢰에 대한 관측 평균값과 추정 평균값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부록 1>을 참고하기 바란다.

셋째, 경찰신뢰의 변동성 또한 국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변동성이 가장 낮은 국가로는 카메룬(평균 -0.780, 표준편차 0.047), Niger(평균 0.859, 표준편차 0.066), 한국(평균 -0.385, 표준편차 0.068), Cote d'Ivoire(평균 -0.796, 표준편차 0.071), 이라크(평균 0.296, 표준편차 0.073)로 나타났다. 한국은 가장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국가 중 하나이다. 이와 반대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국가도 있다. 예컨대, 리투아니아(평균 -0.163, 표준편차 0.983), Estonia(평균 0.450, 표준편차 0.983), 핀란드(평균 2.29, 표준편차 0.696), 조지아(평균 -0.089, 표준편차 0.690), 라트비아(평균 -0.330, 표준편차 0.644)

등이다.

대륙별로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이는 4개 국가의 경찰신뢰 추이를 <그림 5>에서 짙은 파란색 선으로 제시하였다. 예컨대, 아프리카 대륙의 레소토의 경찰신뢰 추이는 <그림 6> 패널 Africa에서 나타나는데 2015년 이후 급격히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레소토가 2014년 말 군의 쿠데타 시도 이후 극심한 정치적 긴장 상태에 놓였고, 당시 군과 경찰의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불안정한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별 역사적 사건이 경찰신뢰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2014년과 2015년 미 국무부의 인권 보고서는 경찰의 불법 살해 사건과 기소 없이 법정 구금 기간을 초과하여 구금된 사건들을 보고하고 있다(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2015).

미 대륙에서 에콰도르는 경찰신뢰의 변동성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특히, 에콰도르는 세계 최대 코카 생산국 콜롬비아와 페루 두 곳 사이에 위치하여 코카를 거래하는 경유지 역할을 하는 가운데, 2000년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달러를 법정통화로 채택한 이후 범죄 조직들이 불법 수익을 세탁하고 대규모 현금 거래를 하기 위한 주요 거점이 되었다. 2007년 에콰도르 정부가 조직범죄집단을 진압하기 위해 시행한 프로그램으로 살인율이 3분의 2나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International Crisis Group, 2025). 하지만, 레닌 모레노 대통령(2017~2021) 재임 기간 동안 시행된 건축 정책으로 인해 국가의 치안 유지 및 교정 시스템 관리 능력을 약화시켜 교정 시설을 범죄 조직의 장악에 취약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심각한 치안 혼란이 다시 시작되었다(International Crisis Group, 2025). 이러한 역사적 사건과 정책의 변화가 에콰도르 경찰신뢰 추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림 5> 패널 아메리카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조지아가 경찰신뢰의 변동성이 가장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 2005년까지는 한국의 경찰신뢰 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나 2005년 이후 급격히 꾸준히 상승하여 2024년에는 경찰신뢰 긍정응답 비율이 61%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지아 경찰은 내무부 소속으로 2000년대 초 만연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 이후 조지아에서 가장 신뢰받는 국가 기관 중 하나로 발전하였다는 평가이다(Osmanov, 2020). 유럽에서는 리투아니아가 경찰신뢰의 변동성이 가장 크다. <부록 1>을 보면, 1994년 리투아니아의 경찰신뢰 긍정응답 비율은 36.4%에 불과하여 유럽 국가 중에서 하위 수준에 머무르던 것이, 2024년에는 경찰신뢰 긍정응답 비율이 88.7%로 증가하여 유럽 국가 중에서도 상위 수준이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경찰신뢰 추이가 가장 크게 향상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Tuménaité(2020)의 연구에 따르면, 리투아니아 경찰에 대한 신뢰

가 향상된 원인은 경찰 업무의 질과 효율성, 도덕적·윤리적으로 헌신적인 경찰관, 차별 금지 및 부패에 대한 무관용 정책에 기초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V.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는 경찰에 대한 신뢰가 세계 각국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1990년부터 2024년까지 35개 년도 중에서 적어도 5번 이상 국가 간 또는 국가별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129개 국가를 대상으로 연도별 경찰신뢰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신뢰에 대한 설문조사가 연도별·국가별·프로젝트별로 분절되어 있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Claassen(2019)이 개발한 베이지언 잠재변인 모형을 활용하여 국가별 연도별 경찰신뢰 긍정비율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경찰신뢰는 전 세계 국가의 경찰신뢰도에 비해 평균 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이 일제 강점기라는 오욕의 역사 거치면서 '일본 순사의 앞잡이'라는 나쁜 이미지와 권위주의 정권을 지나오면서 형성된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정권의 시너'라는 나쁜 이미지가 고착화된 것으로 보여진다. 경찰신뢰가 분석대상 국가 129개 국가 중에서 관측치 평균으로는 84위, 추정치 평균으로 78위에 머무른다는 것을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평균 이하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수준과 문화수준 등이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국가의 침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기관에 대한 시민의 평가가 평균 이하라는 점은 받아들여지는 쉽지 않다. 또한, 한국은 부녀자가 밤거리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세계적으로 우수한 치안을 자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경찰에 대한 시민 신뢰가 평균 이하라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

둘째, 한국의 경찰신뢰에 대한 1990년 이후 2024년까지의 연도별 변동성은 분석대상 국가 129개 국가 중에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아프리카의 Lesotho, 아메리카 대륙의 Ecuador, 아시아의 Georgia, 유럽의 Lithuania와 같이 변동성이 매우 높은 국가들의 존재를 고려할 때, 경찰신뢰의 변동성은 국가마다 다르게 발현될 수 있다. 특히 리투아니아는 경찰신뢰 긍정응답 비율이 1990년 36.4%에서 2024년 88.7%로 괄목상대하게 변화한 것을 보면, 경찰신뢰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충분히 변화 가능한 지표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한국경찰의 경찰신뢰는 1990년에서 2024년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한국경찰의 고착화된 나쁜 이미지가 단기간에 희석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의미한다. 한국경찰이 권위주의 정권 시대를 벗어나 민주주의 시대를 열고, 정권이 여러 번 바뀌는 과정에서도 경찰신뢰는 거의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특히, 1990년부터 2024년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80%에서 20%까지 오르락 내리락 변화하는 것에 비하면, 경찰신뢰에 대한 긍정비율의 건고성은 한국경찰이 해결해야 할 도전이자 과제이다.

셋째, 한국경찰은 지난 35년간 큰 제도적 변화를 경험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경찰의 제도변화가 경찰신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은 놀랍다. 1991년 8월 1일 치안본부 체제에서 '경찰청'으로 승격된 것이라던지, 1996년 8월 8일 해양경찰청을 해양수산부로 이관한 것이라던지, 2004년 12월 31일 수사경과제 시행이라던지, 2006년 6월 30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근거한 제주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이라던지, 2020년 1월 13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국가수사본부 체제로 전환이라던지, 2020년 12월 9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를 통과하게 되어 2021년 7월 1일 전국에서 전면 시행하게 되었다던지 하는 굵직한 경찰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찰신뢰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점은 특이하면서도 놀랍다. 또한 2009년 1월 20일 용산 철거현장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화재참사 사건, 2010년 5월 양천경찰서 수사관 가혹행위 사건, 2012년 오원춘 사건,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에서의 경찰 대응 부실 사건 등 불미스러운 사건에도 불구하고 경찰신뢰는 변함이 없다는 특징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가 두세 개 국가에 대한 횡단면적 비교 분석을 뛰어넘어 한국의 경찰신뢰 동태를 국가간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하지만, 이 연구가 갖는 분석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경찰신뢰에 대한 설문문항을 응답함에 있어서 국가간 비교가 과연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국가별로 문화적, 언어적 또는 개인적 요인으로 인해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에 대해 응답자 개인이 평가 척도를 해석하는 방식이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하기 어렵다. 향후, 국가별 상이한 평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응답 척도에 고정된 "기준점"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간의 응답을 더욱 비교 가능하게 만드는 앵커링 비네트(anchoring vignettes) 방식(King, 2007)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참 고 문 헌》

- 노연상 · 임창호. (2017). 경찰 신뢰도에 관한 국가간 비교연구-한국과 중국 대학의 대학생 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69-104.
- 장현석. (2014). 경찰 신뢰도에 대한 한국과 일본 비교연구. 한국경찰연구, 13(2), 311-340.
- 장현석 · 김소희. (2015).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경찰 신뢰도 변화에 대한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17(1), 111-136.
- 정보성 · 이창배. (2018). 경찰신뢰의 영향 요인에 대한 다수준적 접근: 도구적 시각과 표현적 시각을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32(3), 7-44.
- 황의갑 · 한성일. (2016). 경찰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적· 도구적 요인: 한국 과 몽골 시민들 간의 비교연구. 한국경찰연구, 15(4), 317-342.
- Alda, E., Bennett, R. R., & Morabito, M. S. (2017). Confidence in the police and the fear of crime in the developing world. *Policin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 Management*, 40(2), 366-379.
- Betancourt, M. (2017). A conceptual introduction to Hamiltonian Monte Carlo. arXiv preprint arXiv:1701.02434.
- Bittner, E. (1970). The functions of the police in modern society: A review of background factors, current practices, and possible role models.
- Bradford, B., Sargeant, E., Murphy, K., & Jackson, J. (2017). A leap of faith? Trust in the police among immigrants in England and Wales.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57(2), 381-401.
- Cao, L., Lai, Y. L., & Zhao, R. (2012). Shades of blue: Confidence in the police in the world.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0(1), 40-49.
- Cao, L., & Zhao, J. S. (2005). Confidence in the police in Latin America.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3(5), 403-412.
- Carpenter, B., Gelman, A., Hoffman, M. D., Lee, D., Goodrich, B., Betancourt, M., Brubaker, M., Guo, J., & Riddell, A. (2017). Stan: A probabilistic programming language.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76, 1-32.
- Claassen, C. (2019). Estimating smooth country - year panels of public opinion. *Political Analysis*, 27(1), 1-20.
- De Cremer, D., & Tyler, T. R. (2007). The effects of trust in authority and procedural fairness on cooper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2(3), 639.

- Giddens, A. (2023). *Modernity and self-identity*. In *Social theory re-wired* (pp. 477-484). Routledge.
- Hamm, J. A., Trinkner, R., & Carr, J. D. (2017). Fair process, trust, and cooperation: Moving toward an integrated framework of police legitimacy.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44(9), 1183-1212.
- Hardin, R. (2006). *Trust* (Vol. 10). Polity.
- Jackson, J., & Bradford, B. (2010). What is Trust and Confidence in the Police?. *Policing: A journal of policy and practice*, 4(3), 241-248.
- Jackson, J., Bradford, B., Stanko, B., & Hohl, K. (2012). *Just authority?: Trust in the police in England and Wales*. Willan.
- Jang, H., Joo, H. J., & Zhao, J. S. (2010). Determinants of public confidence in police: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8(1), 57-68.
- Kääriäinen, J. T. (2007). Trust in the police in 16 European countries: A multilevel analysis. *European journal of criminology*, 4(4), 409-435.
- King, G., & Wand, J. (2007). Comparing incomparable survey responses: Evaluating and selecting anchoring vignettes. *Political Analysis*, 15(1), 46-66.
- Macchia, L., & Plagnol, A. C. (2019). Life satisfaction and confidence in national institutions: Evidence from South America.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14(3), 721-736.
- Osmanov, F. (2020). *Police Reform in Georgia*. Blavatnik School of Government, 8.
- Ruddell, R., & Trott, K. (2023). Perceptions of trust in the police: a cross-national comparis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and applied criminal justice*, 47(4), 381-396.
- Schaap, D., & Scheepers, P. (2014). Comparing citizens' trust in the police across European countries: An assessment of cross-country measurement equivalence.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Review*, 24(1), 82-98.
- Skogan, W. G. (2009). Concern about crime and confidence in the police: Reassurance or accountability?. *Police quarterly*, 12(3), 301-318.
- Solakoglu, O. (2016). Trust in police: A comparative study of Belgium and The Netherlands.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 Sciences*, 11(1).
- Stan Development Team. (2023). RStan: The R interface to Stan. <https://mc-stan.org/>

- Sunshine, J., & Tyler, T. R. (2003). The role of procedural justice and legitimacy in shaping public support for policing. *Law & society review*, 37(3), 513-547.
- Tumėnaitė, G. (2020). Piliečių pasitikėjimo Lietuvos policijos sistema pokyčių analizė (Doctoral dissertation, Kauno technologijos universitetas.).
- Tyler, T. R. (2004). Enhancing police legitimacy.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93(1), 84-99.
- Tyler, T. R., & Huo, Y. J. (2002). *Trust in the law: Encouraging public cooperation with the police and courts*. Russell Sage Foundation.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2014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 Lesotho, 25 June 2015.
- Vehtari, A., Gelman, A., Simpson, D., Carpenter, B., & Bürkner, P. C. (2021). Rank-normalization, folding, and localization: An improved \hat{R} for assessing convergence of MCMC (with discussion). *Bayesian analysis*, 16(2), 667-718.

〈부록 1〉 국가별 경찰신뢰 긍정응답 비율 추정치(1994년~2024년)

연번	국 가	1994년			2004년			2014년			2024년			관측 순위	추정 순위
		추정치	CI.95	CI.05	추정치	CI.95	CI.05	추정치	CI.95	CI.05	추정치	CI.95	CI.05		
1	Albania	NA	NA	NA	0.63	0.74	0.50	0.54	0.66	0.44	0.39	0.53	0.28	66	57
2	Algeria	NA	NA	NA	0.64	0.75	0.50	0.69	0.77	0.58	0.70	0.83	0.53	42	44
3	Argentina	0.27	0.36	0.20	0.26	0.34	0.20	0.29	0.38	0.23	0.35	0.46	0.26	122	121
4	Armenia	NA	NA	NA	0.31	0.42	0.23	0.46	0.55	0.35	0.53	0.65	0.42	101	101
5	Australia	NA	NA	NA	0.86	0.92	0.77	0.89	0.93	0.81	0.83	0.92	0.72	11	9
6	Austria	0.75	0.87	0.60	0.79	0.86	0.70	0.86	0.91	0.78	0.85	0.92	0.77	16	15
7	Azerbaijan	NA	NA	NA	0.58	0.72	0.45	0.73	0.83	0.63	0.80	0.90	0.68	40	38
8	Bangladesh	NA	NA	NA	0.48	0.60	0.36	0.35	0.48	0.25	0.40	0.63	0.24	102	99
9	Belarus	0.32	0.42	0.25	0.54	0.65	0.45	0.54	0.68	0.42	0.55	0.77	0.36	103	80
10	Belgium	0.52	0.65	0.40	0.68	0.77	0.56	0.79	0.86	0.70	0.82	0.89	0.73	31	34
11	Belize	NA	NA	NA	NA	NA	NA	0.35	0.50	0.24	0.40	0.58	0.26	97	107
12	Benin	NA	NA	NA	NA	NA	NA	0.47	0.63	0.33	0.59	0.77	0.41	61	74
13	Bolivia	NA	NA	NA	0.22	0.28	0.16	0.25	0.33	0.18	0.20	0.27	0.14	129	129
14	Bosnia	NA	NA	NA	0.63	0.76	0.48	0.56	0.71	0.42	0.54	0.70	0.41	51	52
15	Botswana	NA	NA	NA	0.56	0.72	0.42	0.54	0.70	0.40	0.44	0.63	0.28	49	62
16	Brazil	0.38	0.50	0.29	0.45	0.54	0.36	0.40	0.49	0.33	0.58	0.69	0.49	107	88
17	Bulgaria	0.36	0.46	0.28	0.49	0.57	0.40	0.38	0.47	0.30	0.54	0.65	0.44	108	95
18	Burkina Faso	NA	NA	NA	NA	NA	NA	0.63	0.76	0.49	0.69	0.83	0.50	29	43
19	Cambodia	NA	NA	NA	NA	NA	NA	0.69	0.81	0.53	0.83	0.92	0.68	35	25
20	Cameroon	NA	NA	NA	NA	NA	NA	0.38	0.53	0.27	0.37	0.55	0.24	94	108
21	Canada	0.86	0.93	0.75	0.86	0.92	0.77	0.87	0.92	0.78	0.82	0.92	0.66	9	11
22	Cape Verde	NA	NA	NA	0.45	0.59	0.31	0.50	0.65	0.36	0.50	0.69	0.33	63	77
23	Chile	0.65	0.76	0.52	0.69	0.78	0.57	0.67	0.77	0.54	0.69	0.79	0.56	56	46
24	China	0.74	0.86	0.58	0.78	0.86	0.66	0.84	0.91	0.74	0.91	0.96	0.79	20	14
25	Colombia	NA	NA	NA	0.53	0.64	0.43	0.47	0.57	0.37	0.44	0.54	0.34	91	83
26	Costa Rica	NA	NA	NA	0.50	0.62	0.38	0.45	0.56	0.34	0.58	0.72	0.47	104	87
27	Cote d'Ivoire	NA	NA	NA	NA	NA	NA	0.36	0.50	0.26	0.38	0.56	0.23	96	110
28	Croatia	0.61	0.72	0.50	0.46	0.54	0.37	0.46	0.55	0.37	0.65	0.73	0.53	76	72
29	Cyprus	NA	NA	NA	0.71	0.79	0.61	0.50	0.59	0.39	0.60	0.70	0.50	48	50
30	Czech Republic	0.42	0.52	0.34	0.38	0.46	0.32	0.59	0.69	0.50	0.82	0.88	0.74	71	66
31	Denmark	0.94	0.96	0.89	0.94	0.96	0.91	0.95	0.96	0.92	0.96	0.96	0.93	1	1
32	Dominican Republic	NA	NA	NA	0.30	0.39	0.23	0.26	0.35	0.20	0.29	0.39	0.22	119	122
33	Ecuador	NA	NA	NA	0.29	0.38	0.23	0.58	0.70	0.47	0.38	0.49	0.29	112	104
34	Egypt	NA	NA	NA	0.69	0.82	0.53	0.49	0.58	0.39	0.69	0.85	0.47	70	48
35	El Salvador	NA	NA	NA	0.54	0.65	0.45	0.44	0.53	0.34	0.74	0.83	0.64	93	71
36	Estonia	0.45	0.55	0.35	0.63	0.71	0.54	0.81	0.87	0.73	0.88	0.92	0.81	27	41
37	Finland	0.85	0.92	0.75	0.94	0.96	0.92	0.96	0.96	0.94	0.96	0.97	0.95	2	4
38	France	0.64	0.75	0.51	0.69	0.77	0.60	0.80	0.86	0.72	0.81	0.88	0.72	26	27
39	Georgia	NA	NA	NA	0.43	0.55	0.32	0.68	0.77	0.57	0.61	0.73	0.50	38	59
40	Germany	0.70	0.78	0.59	0.82	0.87	0.75	0.85	0.90	0.80	0.83	0.89	0.76	13	16
41	Ghana	NA	NA	NA	0.55	0.68	0.43	0.38	0.50	0.29	0.30	0.45	0.20	92	94
42	Greece	NA	NA	NA	0.67	0.76	0.57	0.62	0.72	0.51	0.64	0.73	0.53	46	45
43	Guatemala	NA	NA	NA	0.25	0.32	0.20	0.25	0.32	0.18	0.30	0.40	0.23	126	123
44	Guinea	NA	NA	NA	NA	NA	NA	0.38	0.52	0.26	0.32	0.49	0.21	106	113
45	Guyana	NA	NA	NA	NA	NA	NA	0.31	0.46	0.21	0.31	0.58	0.16	99	112
46	Haiti	NA	NA	NA	NA	NA	NA	0.36	0.48	0.26	0.28	0.42	0.19	72	117
47	Honduras	NA	NA	NA	0.48	0.60	0.37	0.35	0.46	0.27	0.32	0.44	0.24	113	109
48	Hong Kong	NA	NA	NA	NA	NA	NA	0.79	0.87	0.69	0.55	0.74	0.36	23	26
49	Hungary	0.62	0.72	0.51	0.59	0.68	0.51	0.61	0.70	0.51	0.70	0.78	0.59	55	51
50	Iceland	0.89	0.95	0.79	0.92	0.95	0.87	0.95	0.96	0.92	0.91	0.95	0.83	4	3
51	India	0.39	0.52	0.29	0.49	0.60	0.38	0.57	0.70	0.47	0.69	0.80	0.53	75	69
52	Indonesia	NA	NA	NA	0.58	0.71	0.46	0.67	0.78	0.52	0.79	0.90	0.63	39	40
53	Iraq	NA	NA	NA	NA	NA	NA	0.63	0.75	0.49	0.68	0.80	0.53	44	42
54	Ireland	0.87	0.93	0.77	0.77	0.84	0.68	0.77	0.85	0.68	0.84	0.90	0.75	22	13
55	Israel	NA	NA	NA	0.67	0.81	0.50	0.53	0.68	0.40	0.53	0.66	0.40	73	60
56	Italy	0.73	0.84	0.60	0.81	0.87	0.73	0.79	0.85	0.70	0.80	0.87	0.72	25	20
57	Jamaica	NA	NA	NA	NA	NA	NA	0.33	0.47	0.23	0.29	0.44	0.19	115	116
58	Japan	0.66	0.78	0.52	0.53	0.64	0.44	0.73	0.82	0.62	0.87	0.93	0.77	43	37
59	Jordan	NA	NA	NA	0.93	0.96	0.84	0.92	0.95	0.86	0.93	0.96	0.86	3	2
60	Kazakhstan	NA	NA	NA	0.35	0.46	0.27	0.53	0.67	0.41	0.53	0.70	0.39	80	78
61	Kenya	NA	NA	NA	0.34	0.46	0.26	0.37	0.49	0.28	0.38	0.53	0.26	114	111
62	Kosovo	NA	NA	NA	NA	NA	NA	0.74	0.83	0.62	0.88	0.93	0.80	15	21
63	Kyrgyzstan	NA	NA	NA	0.30	0.39	0.23	0.40	0.53	0.30	0.50	0.66	0.36	111	106

64	Latvia	0.34	0.45	0.27	0.44	0.53	0.36	0.61	0.72	0.51	0.71	0.80	0.61	74	76
65	Lebanon	NA	NA	NA	NA	NA	NA	0.46	0.58	0.35	0.50	0.63	0.39	83	85
66	Lesotho	NA	NA	NA	0.51	0.66	0.37	0.47	0.62	0.34	0.28	0.43	0.17	78	93
67	Liberia	NA	NA	NA	NA	NA	NA	0.24	0.34	0.16	0.23	0.35	0.14	123	127
68	Lithuania	0.36	0.47	0.28	0.36	0.45	0.29	0.70	0.78	0.61	0.88	0.92	0.81	59	67
69	Luxembourg	NA	NA	NA	0.77	0.85	0.69	0.84	0.91	0.76	0.92	0.95	0.85	18	12
70	Macedonia	NA	NA	NA	0.49	0.62	0.37	0.48	0.59	0.38	0.44	0.58	0.32	89	81
71	Madagascar	NA	NA	NA	NA	NA	NA	0.36	0.50	0.26	0.40	0.58	0.26	82	103
72	Malawi	NA	NA	NA	0.64	0.77	0.48	0.54	0.69	0.39	0.40	0.58	0.26	52	65
73	Malaysia	NA	NA	NA	NA	NA	NA	0.75	0.84	0.64	0.76	0.89	0.56	30	24
74	Mali	NA	NA	NA	0.66	0.77	0.52	0.49	0.63	0.37	0.54	0.72	0.38	57	58
75	Malta	0.64	0.79	0.47	0.80	0.89	0.70	0.74	0.84	0.61	0.59	0.73	0.46	36	30
76	Mauritius	NA	NA	NA	NA	NA	NA	0.51	0.66	0.38	0.38	0.55	0.25	68	90
77	Mexico	0.30	0.40	0.23	0.28	0.35	0.23	0.29	0.37	0.24	0.33	0.43	0.26	124	119
78	Moldova	NA	NA	NA	0.40	0.51	0.30	0.33	0.45	0.24	0.51	0.65	0.39	110	102
79	Mongolia	NA	NA	NA	0.45	0.55	0.34	0.57	0.69	0.46	0.52	0.68	0.38	69	64
80	Montenegro	NA	NA	NA	0.45	0.57	0.34	0.55	0.67	0.46	0.50	0.64	0.38	77	75
81	Morocco	NA	NA	NA	0.55	0.70	0.42	0.47	0.58	0.36	0.73	0.83	0.62	50	55
82	Mozambique	NA	NA	NA	0.55	0.71	0.41	0.49	0.65	0.34	0.47	0.65	0.30	53	68
83	Namibia	NA	NA	NA	0.51	0.68	0.37	0.64	0.77	0.48	0.55	0.75	0.36	41	53
84	Netherlands	0.73	0.83	0.62	0.69	0.77	0.59	0.81	0.88	0.73	0.90	0.94	0.84	17	19
85	Nicaragua	NA	NA	NA	0.40	0.50	0.32	0.49	0.60	0.38	0.27	0.37	0.19	109	105
86	Niger	NA	NA	NA	NA	NA	NA	0.78	0.88	0.64	0.75	0.89	0.56	12	22
87	Nigeria	0.28	0.38	0.20	0.19	0.27	0.14	0.23	0.31	0.16	0.20	0.30	0.12	127	128
88	Northern Ireland	0.73	0.84	0.58	0.68	0.79	0.55	0.76	0.85	0.65	0.73	0.86	0.55	33	28
89	Norway	0.92	0.95	0.86	0.92	0.95	0.87	0.92	0.95	0.87	0.92	0.95	0.84	5	5
90	Pakistan	NA	NA	NA	0.28	0.37	0.21	0.34	0.44	0.27	0.44	0.66	0.26	116	114
91	Palestine	NA	NA	NA	NA	NA	NA	0.53	0.68	0.41	0.39	0.55	0.27	64	73
92	Panama	NA	NA	NA	0.51	0.64	0.40	0.53	0.66	0.42	0.58	0.72	0.46	86	70
93	Paraguay	NA	NA	NA	0.28	0.38	0.22	0.31	0.41	0.23	0.35	0.47	0.26	118	118
94	Peru	NA	NA	NA	0.26	0.34	0.20	0.28	0.36	0.22	0.32	0.41	0.24	121	120
95	Philippines	NA	NA	NA	0.62	0.73	0.49	0.71	0.81	0.59	0.85	0.93	0.71	47	32
96	Poland	0.53	0.64	0.43	0.47	0.54	0.39	0.60	0.70	0.51	0.60	0.70	0.50	67	61
97	Portugal	0.53	0.67	0.41	0.66	0.75	0.55	0.73	0.82	0.64	0.85	0.92	0.77	34	35
98	Romania	0.46	0.55	0.36	0.40	0.48	0.32	0.52	0.63	0.43	0.54	0.66	0.45	90	82
99	Russia	0.27	0.33	0.22	0.26	0.32	0.21	0.36	0.47	0.28	0.47	0.61	0.34	117	115
100	Senegal	NA	NA	NA	0.76	0.87	0.61	0.74	0.85	0.59	0.75	0.88	0.56	14	23
101	Serbia	NA	NA	NA	0.35	0.45	0.27	0.43	0.53	0.34	0.57	0.70	0.45	95	96
102	Sierra Leone	NA	NA	NA	NA	NA	NA	0.27	0.40	0.19	0.21	0.32	0.12	120	126
103	Singapore	NA	NA	NA	NA	NA	NA	0.89	0.93	0.81	0.93	0.96	0.84	7	7
104	Slovakia	0.41	0.51	0.33	0.39	0.47	0.32	0.47	0.55	0.38	0.61	0.71	0.51	100	91
105	Slovenia	0.53	0.64	0.43	0.47	0.54	0.38	0.65	0.73	0.55	0.72	0.81	0.63	60	56
106	South Africa	0.60	0.74	0.46	0.44	0.56	0.33	0.42	0.54	0.31	0.32	0.47	0.22	88	86
107	South Korea	0.50	0.64	0.38	0.48	0.58	0.38	0.47	0.56	0.37	0.46	0.63	0.32	87	79
108	Spain	0.64	0.74	0.52	0.68	0.75	0.59	0.73	0.80	0.65	0.83	0.89	0.74	32	31
109	Sudan	NA	NA	NA	NA	NA	NA	0.47	0.58	0.35	0.35	0.51	0.24	81	97
110	Sweden	0.83	0.90	0.72	0.82	0.88	0.74	0.89	0.92	0.82	0.93	0.95	0.89	10	10
111	Switzerland	NA	NA	NA	0.86	0.92	0.78	0.91	0.94	0.84	0.92	0.95	0.86	8	8
112	Taiwan	NA	NA	NA	0.49	0.63	0.37	0.65	0.76	0.52	0.74	0.86	0.58	58	49
113	Tajikistan	NA	NA	NA	NA	NA	NA	0.71	0.82	0.55	0.89	0.94	0.78	24	29
114	Tanzania	NA	NA	NA	0.67	0.78	0.53	0.60	0.74	0.48	0.80	0.90	0.65	37	39
115	Thailand	NA	NA	NA	0.59	0.73	0.47	0.55	0.68	0.44	0.34	0.49	0.23	65	63
116	Togo	NA	NA	NA	NA	NA	NA	0.37	0.51	0.26	0.47	0.67	0.30	84	100
117	Tunisia	NA	NA	NA	NA	NA	NA	0.69	0.77	0.59	0.57	0.70	0.45	45	47
118	Turkey	0.65	0.77	0.51	0.75	0.82	0.67	0.61	0.70	0.51	0.77	0.85	0.68	28	33
119	Uganda	NA	NA	NA	0.48	0.61	0.36	0.48	0.63	0.35	0.39	0.55	0.26	79	89
120	Ukraine	0.29	0.36	0.23	0.23	0.29	0.18	0.23	0.29	0.16	0.34	0.46	0.25	128	125
121	United Kingdom	0.79	0.88	0.67	0.74	0.81	0.66	0.84	0.89	0.78	0.73	0.81	0.65	21	18
122	United States	0.72	0.81	0.59	0.73	0.81	0.63	0.66	0.75	0.54	0.58	0.70	0.47	54	36
123	Uruguay	NA	NA	NA	0.53	0.65	0.42	0.56	0.68	0.46	0.65	0.76	0.53	62	54
124	Uzbekistan	NA	NA	NA	NA	NA	NA	0.84	0.92	0.74	0.83	0.92	0.71	19	17
125	Venezuela	NA	NA	NA	0.34	0.44	0.26	0.25	0.33	0.18	0.21	0.28	0.15	125	124
126	Vietnam	NA	NA	NA	0.93	0.96	0.88	0.91	0.95	0.82	0.92	0.95	0.82	6	6
127	Yemen	NA	NA	NA	NA	NA	NA	0.39	0.52	0.29	0.54	0.76	0.33	105	92
128	Zambia	NA	NA	NA	0.35	0.48	0.26	0.44	0.56	0.33	0.43	0.60	0.29	98	98
129	Zimbabwe	NA	NA	NA	0.47	0.59	0.35	0.49	0.61	0.38	0.43	0.58	0.29	85	84

주: 관측순위는 1990~2024년까지 관측치의 평균 순위, 추정순위는 같은 기간 추정치의 평균 순위를 의미함

Abstract

A Cross-National Comparative Study of Changes in Citizens' Trust in the Police

*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compare and analyze the level of public trust in the police across the globe and how it has changed. However, conducting large-scale surveys across various countries using the same questionnaire for decades is practically impossible. Therefore, international survey projects on trust in police remain fragmented by year, country, and project. To overcome these practical limitations, the author utilized Claassen's (2019) Bayesian latent variable model. This study estimated the level of police trust over a 35-year period from 1990 to 2024 in 129 countries worldwide, including Korea,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rust in the police in Korea has remained below the global average, with no significant changes since 1990. Compared to other countries, trust in the police in Korea remains below the averages of Asian and Oceanian countries and European countries, and the gap is widening. This is similar to the average for African countries, but slightly higher than the average for the America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goes beyond a single-year comparative analysis of two or three countries and compares changes in police trust across countries.

Key words : Trust in the Police, Bayesian analysis, latent variable model, cross-national comparison, changes in trust

■	논문 접수일	: 2026년	월	일	■
■	심사 완료일	: 2026년	월	일	■
■	게재 확정일	: 2026년	월	일	■